

현빈과 결혼 앞둔 배우 손예진 “함께만 있어도 따뜻하고 든든”

손예진(본명 손연진)은 데뷔 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지금의 소속사와 일해 오고 있는 연예인으로 불린다.

그는 2001년 배우 데뷔작인 ‘맛있는 청혼’에 출연하기 2~3년 앞선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른손엔터테인먼트(현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의 김민숙 대표를 만나 1999년 소망화장품 ‘꽃을 든 남자’의 광고 모델로 연에게에 데뷔했다.

배우가 되기 위해 매일 연기 및 발성 연습 등을 하며 김 대표와 시간 대부분을 함께했고 이를 통해 2000년 서울예술대학교 영화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손예진은 2000년 박기형 감독의 영화 ‘비밀’에서 홍미조 역으로 목소리만 출연한 뒤 이듬해 오디션에 통해 드라마 ‘맛있는 청혼’에서 장희문(소지섭 분)의 여동생 장희애 역을 맡아 부자집 철부지 딸을 소화하며 ‘손예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아델하우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5

데뷔 초부터 상복이 터진 손예진은 2001년에만 드라마 ‘맛있는 청혼’과 ‘헌친’ 두 작품으로 신인상을 여러 개 받았다.

또한 그해 손예진은 포카리스웨트 광고에 출연해 바다와 하얀 집을 배경으로 자

전기를 타고 달리는 이 광고는 아직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선명히 기억된다. 이를 통해 손예진은 청순함의 대명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좋은 반응에 힘입어 동아오츠카는 2001년과 2002년은 물론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도 다시 그에게 광고 모델을 맡겼다. 이는 포카리스웨트 광고 역사상 최초였다.

배우와 광고 모델을 오가며 청순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손예진은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 조연으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그는 그해 개봉한 영화 ‘연애소설’로 한 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을 받았고, 2003년에는 영화 ‘클래식’에서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며 백상예술대상, 대중상 영화제에서 신인여우상을 받았다.이후 2004년 ‘내 머리 속의 지우개’, 2005년 ‘외출’ ‘작업의 정석’, 2006년 ‘연애시대’ 등

에 출연하며 ‘멜로 칸’으로 등극했다. 특히 배용준과 출연한 ‘외출’은 일본에서 개봉된 역대 대한민국 영화 흥행 기록 중 영화 ‘기생충’이 개봉하기 전까지 15년간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또한 ‘연애시대’에서 섬세하고도 애절한 연기를 선보이면서 SBS 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드라마 ‘스포트라이트’ ‘개인의 취향’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사랑의 불시착’ 등과 영화 ‘무방비도시’ ‘아내가 결혼했다’ ‘백야행-하얀 어둠 속을 걷다’ ‘오작한 연애’ ‘타워’ ‘공범’ ‘해적:바다로 간 산적’ ‘비밀은 없다’ ‘덕혜옹주’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협상’ 등에서 꾸준한 연기를 이어나갔다.

손예진은 지난달 16일 첫 방영한 JTBC 드라마 ‘서른, 아홉’에 출연 중이다. 이 드라마는 마흔을 코앞에 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가 맡은 강남 피부과 원장 차미조는 화목하고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인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과 현명한 면모를 지녔다.

한편 손예진은 영화 ‘협상’,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함께한 동갑내기 배우 현빈과 이달 결혼식을 올린다.

이들의 결혼 소식은 지난달 10일 손예진과 현빈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그중 손예진의 SNS에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다. 함께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라며 “남녀가 만나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우리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결혼 발표는 열애를 인정한 지 약 1년 만으로, 결혼식은 30일 서울 광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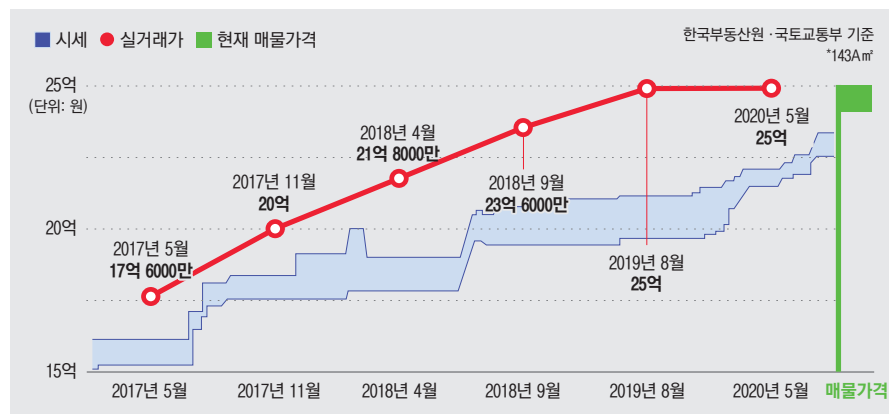
손예진

세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애스톤하우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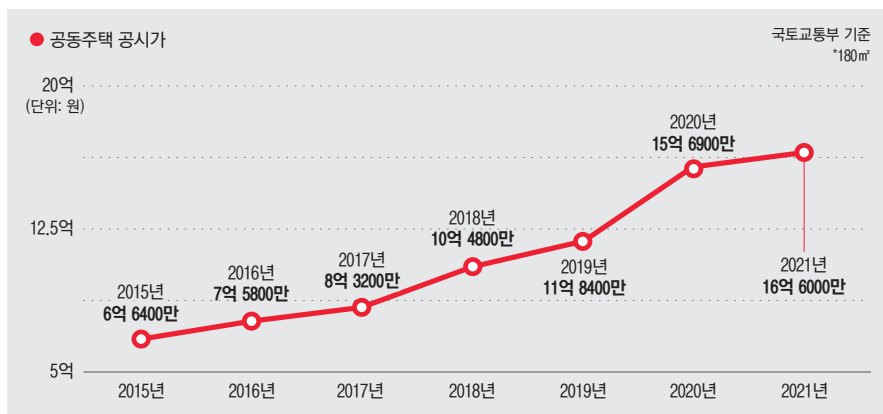
삼성힐스테이트단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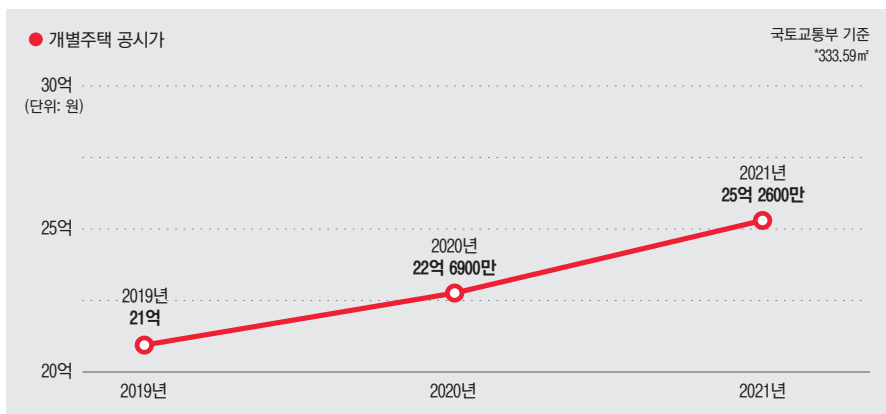
삼성대우엠버스카운티차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18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삼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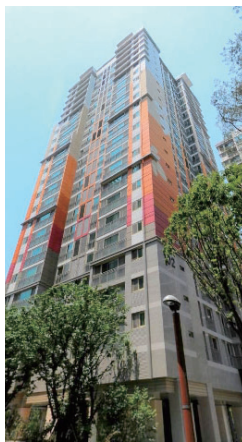
[그래픽=이호석 기자]

한종호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시사저널 기자,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일보 기자로 일하며 기자 생활한 16년간 했다. 이후 2006년 12월 네이버로 자리를 옮겨 정책 담당 이사, 2014년 네이버 파트너스센터장으로 일하며 중소기업-벤처의 의견수렴과 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2015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 취임한 그는 협력 기업인 네이버 관계자로

부터 “한 센터장은 네이버의 대외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강원혁신센터가 네이버의 협력지역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센터장으로서 지역기반 창업가를 발굴·보육하고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며 강원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2015년 1대 센터장부터 현재 3대 센터장까지 연임했다.



고준홍



고준홍 이브자리 회장은 춘천고등학교를 나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1976년 설립되어 44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침구 제조업체 ‘이브자리’를 경영하는 그의 사업 철학은 독특하다. 일찍부터 자사의 핵심 역량인 연구개발만 남겨두고 생산공장 등 나머지 사업부는 모두 분사시켜 소사장제로 운영하거나 외주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경영방식 덕에 이브자리의 분사 직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연구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또한 디자

인(이브자리 회장

인연구소와 수면환경연구소, 넵(NEB)기술연구소 등 3개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품질경영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브자리는 ‘아름다운 침실과 건강한 생활장조’를 기업 목표로 정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더 건강한 잠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빈(김도진)



원빈은 1997년 KBS2 드라마 ‘프로포즈’를 통해 처음 얼굴을 알렸다. 2000년 송승헌·송해교와 함께 출연한 KBS2 ‘가을동화’ 이후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영화 ‘킬러들의 수다’에 출연하면서 차츰 연기자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2004년 장동건과 형제로 출연한 ‘태극기 휘날리며’로 관객 약 1174만명을 모으며 천만 배우로 거듭났다. 또 200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 출연해 기존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며 화제를 일으켰다. 이듬해

엔 영화 ‘아저씨’를 통해 인기배우의 입지를 완전히 굳혔다. 그러나 원빈은 영화 ‘아저씨’ 이후 CF 활동만 할 뿐 작품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15년 5월, 배우 이나영과 3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7개월 뒤엔 아들 출산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는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이주 단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살펴 보면 정비구역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220-2 현대아파트 일대로 구역 면적은 1만559.1㎡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2층, 5개동 총 21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한 작은도서관, 경로당,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해 입주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삼성산과 인접한 자연친화적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삼성산에서부터 점차 낮아지는 건물 높이 계획으로 삼성산 능선과 도시를 이어주는 스카이라인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공동주택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업부지 북측의 삼성산2터널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금천구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 신설 및 기부채납을 통해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저층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비사업이 시흥동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태평동에 3만㎡ 규모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내년 말

까지 3만7288㎡(1만1300

평) 규모의 ‘밀리언 근린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원 조성 부지는 2001년부터 2018년

까지 개 사육장 7곳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다.

시는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는 개 사육장 등을 없애고 공원 조성 부지의 82%를 차지하는 3만617㎡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2009~2019년)도 절차를 마쳤다.

이어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

는 드는 총사업비는 362억원이다.

이 곳에는 어린이놀이터, 경관 뜰, 다목적 잔디마당,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시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과 121대 주차 규모의 공원 밑 지하 경영주차장도 조성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돌봄서비스 등 갖춘 일원스포츠클럽문화센터 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는 영어도서관과 돌봄서비스 등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학습·놀이시설을 갖춘 ‘일원스포츠클럽문화센터’를 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하 3층~지상 1층, 연면적 9682㎡ 규모로 개포8단지 재건축사업 기부채납으로 지어졌으며 55억원을 투입해 6개 시설을 만들었다.

이 곳에는 라켓볼장, 농구장, 클라이밍장을 갖춘 체육센터가 조성됐으며 구 최초의 영어도서관인 ‘일원라운영어도서관’에 2만여권의 영어 도서가 비치된 다아울러 구 3호 어린이실내놀이터를 개관하고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는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에서 성인 대상 60여 개의 강좌가 열리며 미래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 대상 4차산업 교육이 이뤄진다.

먼저 체육시설과 영어도서관이 문을 열고 시설별로 순차 개관할 예정이다. 미래교육센터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업이 확정돼 5월 개관 예정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지난달 연면적 9267㎡ 규모의 자곡문화센터에 이어 이달 일원스포츠클럽문화센터가 개소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